

일반 연재(Ⅲ) - 25

간조직 소견이 정상인 HBsAg 건강 보유자에 대한 연구

한양의대 내과 : 이민호, 황선호, 함준수, 이종철, 기춘석,
박경남
한양의대 핵의학 : 조석신

간조직 소견이 정상인 HBsAg 건강 보유자에 대한 연구는 무증상 B형 간염환자에 대한 관찰의 좋은 대상이 된다.

이들 환자군에서 질병의 활성도를 보는 검사인 혈청 transaminase가 아닌 구조적 변화를 보는 Shunt Index(TL-201 Scan)와 기능적 변화를 보는 ICG-Rmax 수치는 보고된 바가 없다. 연구자들은 간조직 소견이 정상인 HBsAg 건강 보유자에서의 Shunt Index 및 ICG-Rmax의 평균치를 구하여 만성 간 질환 환자의 치료 및 예후 추정의 지표로 삼고자 하였으며 이들 환자에서도 만성으로 병이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추적 관찰하였다.

1988년 9월부터 1993년 8월까지 5년간 한양대학병원 소화기 내과에 입원하여 확진된, 간조직 소견이 정상인 HBsAg 건강 보유자 24명(남자 15명, 여자 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평균연령은 33.9세(20세-57세)였다.

총 24명중 이상 수치를 보였던 7명(29.2%)에서는 추적 검사한 결과 만성 지속성 간염 4명(17.7%) 및 알콜성 간 질환 3명(12.5%)으로 확인되었고, 관찰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생화학적 검사 소견이 정상이었던 17명에서는 상기 검사를 1주일 간격으로 각각 3회씩 시행하였다. Shunt Index와 ICG-Rmax의 평균치는 각각 0.243 ± 0.067 과 $5.298 \pm 2.221 \text{mg/kg/min}$ 이었고 Shunt Index와 $1/\text{ICG-Rmax}$ 의 상관 계수는 0.655이었으며, R-squared는 43.0%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 추적 검사중 간조직 소견이 정상인 HBsAg 건강 보유자의 29.2%에서는 만성 지속성 간염(17.7%) 및 알콜성 간 질환(12.5%)으로 발전됨이 밝혀졌고 따라서 혈청 HBsAg 양성으로 정상적인 간조직 소견을 보였다하여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2) 정상 생화학적 검사소견을 나타낸 대상군에서의 Shunt Index 및 ICG-Rmax의 평균치는 각각 0.243 ± 0.067 , $5.298 \pm 2.221 \text{mg/kg/min}$ 로 만성 간 질환 환자의 치료 및 예후 추정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Shunt Index와 $1/\text{ICG-Rmax}$ 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r=0.655$, $r^2=43.0\%$).